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을 통한 노동시장 분절구조 형성의 성인지적 접근

안 은 숙(대구대학교)

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자립에 근간이 되는 경제적 자립성확보의 문제와 직업적 성취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환경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통해 살펴보면 가부장제 중심의 특정가족 형태가 제도적으로 지지되어온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목하게된다.

가부장제적인 유교문화의 전통이 뿌리깊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범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복지국가 발전이 제한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과 정권에서 표명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지향을 위해 남성 가장 위주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지지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시되던 정치 환경적 요인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성별분업적인 사회구조와 가부장제적인 가족구조가 강화되어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소외와 상대적 불평을 구조를 형성시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체제 형성이라는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구조에서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을 하더라도 불안정 고용상태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근로조건 상의 불이익이 전제되는 분절된 2차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되며, 시장에서의 기여도가 주요한 척도가 되는 사회보장체계에서의 권리 또한 제한 받게되는 연속적 구조에 위치하게되어 결국 상대적으로빈곤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사회적 환경이 생성, 강화되었다.

이는 최근 심각한 문제들과 쟁점화된 논의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족의 다양화 양상들이 여성가구주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문제의 범주와 그 파급의 질적인 수준이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변화되리라 추정되고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체제하에서 미숙련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의 현대적 복지는 단순 구빈의 시혜성 지원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신빈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절대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여성가구주들의 사회적 자립의 기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회구조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분절된 노동시장에 주목하고 그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사회구조적 빈곤유인 상황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한 정책적 대안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사전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지금까지의 사적 노동 개념이 아닌 사회적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정책적 대응은 그 시급성을 고려해야만 할 시점에 놓여있다.